

어느 덧 우수가 지나고 경칩을 맞았다. 때늦은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제법 봄이 오는 것이 느껴진다. 예부터 우수 경칩이 지나면 동면하던 개구리도 잠을 깨고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했다. 경칩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해서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했다. 그리고 흙벽에 매질을 하면 일년 내내 빈대가 없어진다고도 했고, 물그릇에 재를 타서 방안 네 귀퉁이에 놓아두면 빈대가 없어진다고도 했다. 이른 봄 단풍나무와 고로쇠나무 수액을 받아먹으면 위장에 좋다고도 했다. 한해를 시작하는 봄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귀한 계절이 아닐 수 없다.

봄을 재촉하는 바람이 훑날리는 날 하늘 빛 가득한 바다 건너 따뜻한 봄 향기가 내 마음을 촉촉이 적셔준다. 채 녹지 않은 눈을 지르뎌고 봄은 조용히 내게로 온다. 이 봄이 특별히 따스롭게 느껴지는 것은 혹한의 지난겨울을 날씨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봄의 향연은 한겨울 죽은 듯 잠자던 나무를 흔들어 깨우고 계곡 얼음장아래 고요히 흐르던 여울물 소리의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는다. 매년 맞는 봄이지만 역시 설렘이요 또다시 만남을 시작하는 윤회의 절기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그리운 사람을 다시 그리워하기도 한다.

봄은 죽은듯 잠자던 나무를 흔들어

어느 해 봄날 들뜬 마음으로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여

인을 찾게 되었다. 그녀는 그사이 불혹을 넘겨 예쁜 공주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현생의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어졌던 그녀였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그녀의 소식이 가끔씩 궁금하기도 했었다. 어디쯤에서 무엇을 할까?

세상 속에 갇혀 살았던 그녀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도 없었다. 다만, 처음 만났을 때 작은 계집아이였던 그녀는 그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학업을 마치고 '이 하늘아래 어디에서인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그리운 마음을 접어 두곤 했었다. 막연하게 누군가와 함께 노아의 방주를 타고 멀리 떠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뿐이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리고 아름다운 감성을 지녔던 그녀가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언제나 햇살이 눈부신 소풍날을 그리워했었고, 내게

이 세상이 너무 슬프고 춥다고 말했던 어린 왕자의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아이가 살기에 너무 거칠고 척박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 하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녀가 늘 마음 한 켠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소식이 갑자기 내게 날아왔다. 마치 꿈을 꾸듯이 기적같이 그녀가 불쑥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그 애를 잊고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가해...아마도 그렇겠지요. 그 애가 남긴 걸 갖고 계신다니, 저에겐 그런 기억도 물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니다. 20여년 전 심한 열병을 앓다가 하늘로 떠나버린 그 아인... 가해가 살긴 이 세상이 너무도 황무했나 봅니다. 그 애의 소원처럼 지금 하늘 어디쯤엔가 민들레 흩날린 작은 구름

으로 떠다날...'이라고 짙막한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끊어졌다. 지금 저 하늘아래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늘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 하나쯤 지니고 산다. 그 그리움으로 평생을 가슴앓이 하며 살고 때론 안타깝게도 가슴에 묻고 아주 먼 길을 떠나기도 한다. 봄이면 고목나무에 싹을 틔우듯 그렇게 그리움의 꽃을 피운다. 그것을 '봄을 탄다'고 말하기도 한다.

눈 덮인 산 아래 철길을 따라 달경거리며 느릿느릿 달리는 기차소리 넘어 아득한 그리움이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험한 벼랑을 굽이돌아 좁은 샅길을 따라 그 낮은 세상을 향해 쪽빛 그리움의 날개를 살포시 펼쳐 보인다. 누군가를 향한 가슴 두근거리는 그리움을 하얗게 태우는 것이다. 짐작과 애증의 번민을 벗고 시린 그리움의 꽃이 수줍게 피어나는 무진(無眞)세상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향기가 그림자. 교활하지 아니하고 기만하지 아니하고 이해타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향기, 언제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 풋풋한 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의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햇살같은 봄이었으면 좋겠다. 분단 반세기를 넘어 날마다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들의 격정 어린 해후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봄이었으면 더욱 좋겠다. 사람의 향기가 더욱 그리운 봄이다.

이선국 칼럼

칼럼위원(시인, 토성면장)



사람의 향기가 그리운 봄

독/자/투/고

학교폭력 예방은 학기초가 중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난국의 이면에는 바로 교육문제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작금에 이르러 경찰력까지 동원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한다. 또한, 학교폭력은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나쁘게 이용하거나 괴롭히고 다음 희생자가 되기를 꺼려하는 방관자들의 충성을 얻기도 하고 보복이 두려워 좀처럼 신고하려 들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신고 117를 안전드림과 통합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둬지는 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들의 상호간 사소한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다. 또한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초에 학생들 사이 서열 다툼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이 기간에 우선 부모가 그리고 교사가 마지막으로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의 예방의 기본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 아무리 사회윤리가 타락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육의 현장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폭력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경찰이 개입하여 강력하게 학교폭력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본다.

나는 희망한다. 학교 내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때를. 그리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사회의 문제인 학교폭력이 근절되면서 윤리를 존중해야 할 교육의 현장이 바로 세워질 때를...



최문석 경사
고성경찰서 금강지구대

소방차 5분 이내 도착 위한 소방통로 확보 절실

소방차가 출동 하면서 사이렌을 울리며 빨리 달리는 이유는 5분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 이유는 화재발생 시 5분안에 도착해야 주변 건물로의 연소 확대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고, 구급출동은 위급한 환자의 경우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소생 시킬 확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골든타임(화재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등 구조가 가능한 사고 발생 후 최초 4~6분)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화재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로 상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소방차의 현장진입을 방해한다면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파트 화재의 경우 진입로 상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차량 출동 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사람들이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면 정책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소방차 출동 시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긴급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로 제정되어있다.

증거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소방차에 CCTV설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인위적인 통제는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서로를 위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이고 지금보다 변화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전 석봉
속초소방서 예방담당